

<div>더불어</div> <div>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div>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5.(목)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4. 12. 5.(목) 16:00
위원장	박채아(010-3809-6273)	담당자	집행위원 심우일 (010-6739-09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 긴급 성명 발표〉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분노와 명령에 응답해 즉각 퇴진하고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작은 정치 이익과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역사를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모든 선택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의 방조자로 기록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

이번 성명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 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별첨>

1.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 국민의 분노와 명령에 응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국민은 하야 아니면 탄핵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란 공범의 길을 걸을 것인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민과 함께 국회를 지킨 이들을 외면했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민의를 거스른다면 역사의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정치적 이익과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역사를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지금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더 이상 내란 범죄를 비호하지 말아라.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정당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국민을 등지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정당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다. 정의와 헌정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내라. 정당의 가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역사와 국민은 국민의힘의 모든 선택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의 방조자로 기록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대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